

과학언론이 주변성을 극복하려면

뉴스와이어 편집장/전 과학동아 편집장
신동호(dongho@newswire.co.kr)

IMF 위기 이후 신문의 부서가 통폐합돼 과학부나 생활과학부, 문화과학부가 없어지고 많은 과학기자들이 신문을 떠났다. 최근 들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과학보도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과학저널리즘의 실종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언론매체에서 비중있는 분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과학보도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주변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 사주나 편집국 고위 간부가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갖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지원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과학문화재단의 과학보도 지원 사업이 특정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 과학문화재단은 좋은 기획물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현재 과학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문에서 주변성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나 언론이 모두 인식을 하면서도 정작 과학보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생각해볼만한 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공급자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선 기사가 되어야 한다

과학보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면의 가독성이 다른 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과학면은 스포츠나 문화면, 건강면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성 높고 독자의 입장에서 소재를 선택하는 눈을 가진 기자가 쓰는 글은 다른 면보다 오히려 가독성이 높다. 이는 과학보도의 가독성이 전적으로 기자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학기사가 재미없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나 정치 분야처럼 뉴스의 1차 생산자인 연구소나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를 꺼리는데 있다. 또한 과학보도가 활성화되려면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해 보도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가 만든 보도자료는 대개 '국내 최초'나 '세계 최초'나 하는 수사를 섞어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급급한 것이 많다.

이런 기사보다는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지식을 늘려주며, 생활과 관련된 과학기사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일단 과학기자가 되면 적어도 5년 정도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과학기자는 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아이디어로 선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과학기사는 독자에게 놀라움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과학기술 만능주의적 보도 태도보다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에서도 보도하는 비판의식이 과학기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독자들도 기술평론가로서 기술 발전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은 자연, 환경, 우리의 몸 등 우주의 만물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활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돈 벌고, 생존하기 위해 살지만, 진정한 생의 의미는 주변의 세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는 어린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 과학자라고 생각한다. 애들은 언제나 만지고, 맛보고, 묻고, 배운다. 항상 실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다. 이런 본능적 호기심이 바로 과학

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들의 세계에 적응되면서 호기심을 급속히 잃어버리게 된다. 초중학교 때 갖고 있던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 주는 기사를 발굴해야 한다.

기자가 과학 기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가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의 연구를 이야기(내러티브)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과학자의 개인적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과학보도는 일종의 미스터리, 탐정소설과도 같다. 치밀한 플롯을 지닌 탐정소설적 테크닉, 그리고 좋은 주인공이 과학 기사에는 필수적이다.

● 과학 섹션화를 통한 심층보도의 활성화

미국 볼티모어선지가 노벨상을 탄 한 분자생물학자의 인간 스토리를 과학과 엮어내는 방법으로 3면에 걸쳐 긴 기사를 실은 기사를 본적이 있다. 광고도 전혀 없는 이 기사는 원고지 1백매가 넘는 엄청난게 긴 기사였지만 과학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의 스토리와 함께 곁들여 소개해 마치 짧은 소설책 한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사는 기본적으로 분량이 짧아 글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면을 섹션화해서 늘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중앙일보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예전에 문화일보가 뉴욕타임즈의 사이언스 섹션을 번역해 내보낸 바 있지만 중단돼 버리고 말았다.

섹션화가 가능하려면 기사의 질이 높아져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광고가 뒤따라 주어야 한다. 현재 독자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이공계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과학면을 섹션화할 경우 고정 독자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과학부가 독립해야 한다

현재 중앙일간지 가운데 과학부를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단 KBS, MBC 제외) 과학부가 있어야 1면 등 주요면에 대한 기사 배치를 결정하는 편집국 회의에서 과학부장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장이 과학기사를 세일즈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학지식과 과학보도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장은 과학기사를 키우는 데 자신이 없어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학면에 나가는 뉴스를 제외하고는 과학뉴스가 비중 있게 다루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한 과학뉴스는 다른 뉴스와 달리 영향력 있는 뉴스라기보다는 지식을 전파하는 뉴스가 대부분이어서 독자들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과학부를 독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기사량이 크게 늘어난 건강 의학 분야, 1990년대에 한창 비중이 늘어났으나 요즘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환경분야, 그리고 과학분야를 합쳐서 과학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 환경, 과학 분야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연관성이 높아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처럼 IT와 과학이 통합돼 있는 상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크고, IT에 가려 과학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에서 '뉴스위크'의 과학담당기자를 만난 적이 있다. 잘 알다시피 뉴스위크는 과학이나 의학을 커버스토리로 다룰 때가 많다. 그래서 물어보니 3회에 한번 정도는 과학이나 의학이 커버스토리라고 한다. 왜 그렇게 과학을 많이 다루냐고 물어보니까 "과학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 잘 팔리기 때문이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 시사잡지에서는 정치, 사회문제는 자주 기사로 오르내리지만 과학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과학이 식상한 시사 뉴스보다 더 산뜻하고 재미있는 소재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뉴욕타임즈의 과학담당 기자였던 보이스 웬스버거에 따르면 현재 뉴욕타임스 과학부에는 3명의 과학 에디터(한명은 그래픽에디터)를 제외하고 12명의 과학 담당기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보다 2배나 늘어난 숫자이다. 지금은 과학 안에서도 환경, 의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으로 분화돼 맡는 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돼있다. 기술부는 기사가 30명 가까이 된다. 이를 통해 보면 과학기술 담당기자가 무려 40명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물론 기술부는 정보기술을 많이 다루지만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을 다루는 기술부와 전통적인

경제부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기술부가 아닌 산업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보다는 기술부로 개편해야 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면에 과학기사가 자주 나가야 한다**

현재 과학담당 기자의 숫자는 대개 신문마다 1-2명 수준이다. 동아일보가 주2면, 중앙일보가 과학섹션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각 언론사는 주1회 과학면을 내보내고 있다. 현재의 기자 숫자로는 과학면을 제작하는 데 온통 정신이 쏠려 1면이나 사회면 기사를 쓸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기사를 발굴해 1면 같은 곳에 출고를 해도 채택되는 확률이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부가 신설돼 기자의 숫자를 늘리고 과학부장이 편집국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을 해야 과학보도가 살아날 수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에 따르면 과학담당기자의 소속과 숫자는 아래와 같다.

과학담당기자의 숫자와 소속 부서	
경향신문	경제부 1명
국민일보	정보생활부 1명(의학 2명, IT 2명)
대한매일	경제부 1명
동아일보	동아사이언스 2명(과학동아 7명과 협력 체계)
문화일보	산업부 1명
세계일보	사회부 2명
연합뉴스	경제국 1명, 편집국 1명
조선일보	산업부 1명
중앙일보	산업부 3명
한겨레	사회부 1명
한국일보	생활과학부 1명
KBS	과학부 1명
MBC	정보과학부 1명
SBS	문화과학부 1명

자료: 한국과학기자협회

● **웹사이트에서 과학이 독립된 카테고리로 등장해야 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의 '2002년 과학기술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인지 경로는 TV/라디오 등 방송이 50.3%, 신문 20.5%, 인터넷 13.3%이다. 인터넷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신문기사도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신문에 실린 과학기사가 좀더 인터넷 이용자에게 노출되려면 신문 뉴스 사이트와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에 과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야후, 네이버, 엠파스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대부분 IT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과학기사를 취급하고 있어 과학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과학 카테고리가 없고 대신 경제 카테고리 속에 숨어 있어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 IT와 과학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기사를 함께 싣고 있다. IT/과학이란 카테고리를 만들고 다른 기술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술을 IT로만 국한시켜 다루고 있어 에너지, 자동차, 환경기술 등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다뤄지려면 과학이 독립된 카테고리로 존재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과학과 건강을 묶어 다뤄야 한다. IT도 기술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다뤄져야 다양한 기술을 소개할 있다.

과학문화재단은 과학을 독립된 카테고리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기사를 많이 다루는 포털 사이트와 언론매체를 지원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각 뉴스 매체별 인터넷 메뉴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는 정보과학, 동아일보(donga.com)는 정보과학(dongaScience.com 전문 사이트 운영), 조선일보(chosun.com)는 경제, 중앙일보(joins.com)는 건강과학, 한겨레(hani.co.kr)는 IT과학, 한국일보(hankooki.com)는 IT과학 카테고리에 과학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주메뉴에 science, technology, health가 있다. CNN은 science & space, technology, LATIMES는 science & medicine, BBC는 Health, Science/Nature, Technology를 메뉴로 두고 있어 한국의 언론에 비해 과학과 기술 의학, 자연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 / 매거진 서비스 현황

사이트	분 류	뉴 스	인터넷 매거진	비 고
다음	커뮤니티포탈	○	○	· 다수의 오프라인 매거진을 PDF 형식으로 서비스 · 주요기사는 유료서비스(건당/전체잡지별 과금)
엠파스	종합검색엔진	○	○	· 매거진내 과학섹션 없음
야후코리아	종합검색엔진	○	○	· 매거진내 과학섹션 없음 · 컴퓨터/모바일 섹션 내 과학 기사 포함 · 제휴 주·월간지를 각 카테고리 분류 항목으로 사용
네이버	종합검색엔진	○	○	· 매거진내 과학섹션 없음 · 매거진을 통해 과학기사 다루고 있지 않음
한미르	종합검색엔진	○	×	· 뉴스-정보통신 카테고리내 주일간지의 과학기사 서비스
네띠앙	커뮤니티포탈	○	×	· 뉴스-IT 카테고리내 과학기사(굿데이 기사 위주)
네이트닷컴	유무선포탈	○	×	· 뉴스-IT/과학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드림위즈	커뮤니티포탈	○	×	· 뉴스-정보통신-과학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 IT 분야 위주의 정보
유니텔	커뮤니티포탈	○	×	· 뉴스-정보통신-과학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 IT 분야 위주의 정보
코리아닷컴	커뮤니티포탈	○	○	· 다수의 오프라인 매거진을 PDF 형식으로 서비스 · 주요기사는 유료서비스(건당/전체잡지별 과금)
하나포스	커뮤니티포탈	○	×	· 뉴스-정보통신-과학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 IT 분야 위주의 정보
하이텔	커뮤니티포탈	○	×	· 뉴스-IT과학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 IT 분야 위주의 정보 · 이타임즈넷 신디케이트를 통해 기사 소싱
천리안	커뮤니티포탈	○	×	· 뉴스-정보통신 카테고리내 과학기사(주요 일간지) · 별도의 파플러사이언스 잡지 기사 제공
프리챌	커뮤니티포탈	○	×	· 무료 배포신문 포커스 기사 사용
msn코리아	커뮤니티포탈	○	×	· 뉴스 카테고리내 정보통신/과학 섹션 없음

자료: 동아사이언스